

## 홍낙순 문학론 연구

— 18세기 중반 청류계 문인들의 문예론과 관련하여\* —

하지영\*\*

<차 례>

1. 서론
2. 18세기 중반 청류계 문단과 홍낙순
3. 홍낙순의 문학론의 특징
  - 1) 진한고문 독서를 통한 기(氣)와 의(意)의 획득
  - 2) 실(實)을 통한 정(正)의 제시
4. 18세기 중반 청류계 문단과 관련하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홍낙순의 문학론을 통해 18세기 중반 청류계 문인들의 문예적 지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홍낙순은 당송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고 그 법도를 학습하는 데 급급한 당대의 문단에 대해 비판하며, 문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양한의 문장, 특히 『사기』를 문장의 전범으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반복된 독서를 통해 선진양한 문장의 기(氣)와 의(意)를 획득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제도론을 표방하며 구체적인 사실과 평탄한 언어로 보편적 이치를 표현할 것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문학론은 이운영, 이인상으로 대표되는 노론 청류계 문단의 예술 담론과도 상통한다. 이들의 상고적, 제도적 문예론은 청류계 문인들의 보수적 현실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문예의 전념하는 자신들의 삶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18세기 중반 노론 청류계 문단은 노론계 문단의 세부적인 구도와 문학론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 연암그룹 문학의 연원을 밝힐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S1A5B5A07064659)

\*\*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주제어** 노론, 18세기 중반, 진한고문론, 홍낙순, 김상정, 청류

## 1. 서론

18세기는 문예에 대한 다양한 지향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가문과 학파, 당파에 따라 분기된 문인그룹은 시회(詩會), 강독회를 가지거나 함께 유람을 하면서 서로간의 결속을 강화해 나갔고 이 자리에서 유사한 문예적 취향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문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문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세기 노론 그룹은 현실적 지향과 문예적 지향이 상호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윤영(李胤永, 1714~1759), 이인상(李麟祥, 1710~1760) 등을 중심으로 모인 노론 문인들은 이재(李穡, 1680~1746)의 학맥을 이으며, 보수적인 현실관과 그에 상응하는 상고적 문예관을 견지하였다. 이들 문인은 청의(淸議)를 표방하며 당시 정치에 비판적 인식을 보이며, 스스로를 청류로 자칭하였다. 이들 문인 그룹은 고문과 고동(古董)을 선호하는 공통된 문예적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논해졌다. 특히 이윤영, 이인상을 단호(丹壺) 그룹이라 칭하며 이들의 공통된 문예적 지향을 포괄하여 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sup>1)</sup>

그동안 18세기 노론계 문학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전반 이천보(李天

1) 김수진(『凌壺觀 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2.)은 이윤영, 이인상을 중심으로 한 문인그룹을 단호 그룹이라 칭하며, 이들이 고동(古董)과 고문(古文)을 애호하되 이념적 성격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논하였다. 백승호(『단호(丹壺) 그룹 문인들의 애사(哀辭)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역시 단호그룹의 개념을 원용하면서 이들의 애사가 문학적으로 심미적인 효과를 창출하면서도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양상을 논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되, 18세기 중반 보수적 정치관, 상고적 문예론을 견지하며 결집했던 다양한 문인들을 폭넓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청류계 문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輔), 남유용(南有容), 황경원(黃景源), 오원(吳瑗) 등의 노론 사가(四家)와 18세기 후반 연암그룹에 집중되어 왔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청류계 문인들은 노론 사가보다 한 세대 뒤, 연암그룹보다 한 세대 앞에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앞선 노론계 문인들의 문학적 지향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상황 및 각 구성원의 현실인식, 삶의 태도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그 지향을 수정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청류계 문인들의 문학은 연암그룹 문학에 연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청류계 그룹은 18세기 문학의 다양한 양태를 밝히기 위해서 주목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이윤영, 이인상 등이 시, 서, 화 창작활동에 전념하며 자신들의 문예적 지향을 해명하는 담론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홍낙순(洪樂純, 1723~1782)을 주목한다. 그는 청류계 문인들과 각별한 교유관계를 가지며 활발하게 문예 활동을 진행해 왔다. 노론계 시인 이병연(李秉淵)의 『사천시초(槎川詩抄)』와 김이곤(金履坤)의 『봉록집(鳳麓集)』을 간행하여 김창흡 이후의 시맥(詩脈)을 공고히 한 것만으로도 그가 노론계 문단에서 가지는 위치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스스로는 시보다는 산문 창작에 열중하며<sup>2)</sup> 자신의 문학적 지향에 대한 논리를 구체화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당대 문단의 문제점, 문학의 목표에 관해 논쟁적이면서도 독창적인 글쓰기를 남겼다. 홍낙순의 문학론은 18세기 중반 노론 문단의 내적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8세기 중반 노론 청류계 문단의 현실적 지향, 교유관계, 문예 경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왔지만 개별 문인에 대한 연구는 이윤영, 이인상 등을 제외하면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sup>3)</sup> 홍낙순 연구는

2) 홍樂純, 『大陵遺稿』 권1 「壺陵唱酬錄序」 “余不知詩, 又不喜爲詩, 故余詩不工, 又不多也.”

3) 이윤영에 관한 연구는 박경남(「丹陵 李胤永의 『山史』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이경순(2005)의 석사논문이 유일한데, 이 논문에서 홍낙순의 생애와 문학이 개괄적으로 소개되었으며, 문학론에 대해서는 진한고문에 대한 선호가 뚜렷이 나타나고 의(意), 기(氣), 정(正), 진(眞)을 중시한다고 분석되었다. 이밖에 이인상, 김상정, 홍낙순의 우정 담론의 배경과 논리를 밝힌 김수진(2013)의 연구는 홍낙순의 사유 체계의 일단을 살펴보는 데 참조를 제공한다. 하지만 홍낙순 문학론이 당대 문단에서 가지는 특징, 현실적 지향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류계 문단의 일원으로서 홍낙순 문학론의 특징과 내적 논리를 살펴본 다음, 청류계 문단의 문예적 지향과 어떠한 관

논문, 2001.)에 의해 먼저 진행되었다. 그는 『산사(山史)』를 중심으로 산수에 대한 이윤영의 관찰이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무력이 아닌 덕에 의해 질서 지워진 세계를 소망하였고, 이를 비유적 언어를 통해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최선혜(『18세기 淸流處士型 文人의 형성과 丹陵 李胤永의 詩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는 이윤영의 시문학은 18세기 초 경화의 시은(市隱) 문화와 청류문인간의 교감의 산물이었으며, 대명의리의 세도(世道)와 의리 의식을 바탕으로 시문학을 창작하였음을 밝혔다. 이인상에 관한 연구는 먼저 미술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의 그림은 고의(古意)를 존중하는 전통지향적인 태도가 나타나면서도 탈속적인 경향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문학에 관해서는 김수진(2012)은 그를 추구하는 그의 문예가 이념성과 심미성을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희병(『능호집』, 돌베개, 2016)은 이인상의 문학론이 당송고문에 비판적이면서도 진실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윤영, 이인상과 함께 김상숙도 노론계 문단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독특한 문예적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그의 형 김상복이 탕평파에 합류하면서 청류계 문인과는 정치적 지향이 다소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상숙은 김영진( 배와 김상숙의 생애와 교유, 저작, 『문헌과 해석』 31, 태학사, 2005)에 의해 그의 생애와 교유가 밝혀진 바 있고, 이현일(『새자료 배와 『중언』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31, 태학사, 2005), 박동욱(『坯窩 金相肅의 散文 研究』, 『語文研究』 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등에서 그의 문학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김상숙이 당대 노론계 문단에 가지던 입지가 크다는 점을, 그리고 그 주변 문인에 대한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상숙의 서체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데, 유승민(『坯窩 金相肅(1717~1792)의 鍾絲體 受容과 그 意義』, 『美術史學研究』 275-276, 한국미술사학회, 2012)은 김상숙의 중요체에 주목하여 그와 주변의 문사들만의 상고적인 문화 활동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강조하였다.

련성이 있는지 논해 보고자 한다.

## 2. 18세기 중반 청류계 문단과 홍낙순

홍낙순<sup>4)</sup>은 외척 집안인 풍산 홍씨 집안 출신으로 홍국영(洪國榮)의 백부이다. 50대 이후 대제학, 좌의정까지 올라 권세를 누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력은 홍낙순을 이인상, 이윤영와 같은 청류계 문인들과 같은 영역으로 묶어 논하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나 적어도 정조 즉위 이전 홍낙순은 청류계 문단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친은 홍창한(洪昌漢)인데 이재의 제자로 탕평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예문관 검열로 재직 중 연석의 이야기를 누설한 잘못으로 삭출되었고 이후 탕평책이 시행되자 누차 불러도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sup>5)</sup> 홍낙순은 청류계의 종장 김원행(金元行)의 사위이기도 하다. 홍낙순의 정치적 입장도 이러한 가계에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는 다른 노론 청류계 문인과 마찬가지로 대명의리를 고수하는 보수적인 대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김상용(金尙容)의 정려문 증수기

4) 홍낙순의 본관은 豊山, 字는 伯孝, 號는 大陵이다. 그의 5대조는 선조와 인목대비의 소생인 정명공주의 남편 영안위 洪柱元이다. 증조부 洪重楷는 宋時烈의 문인으로 충주목사를 역임하였다. 부친 洪昌漢은 李穡의 문인으로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모친은 公山判官 兪斗基의 따님이다. 홍낙순은 35세에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관료생활을 시작하여 23년간 대사간, 대사성, 이조판서, 대제학,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그의 58세에 조카 홍국영이 실각하자 곧 파직 당했다. 60세에 생을 마쳤는데, 1858년 철종 9년에 손자 洪祐冕 청으로 복관되었다. 김원행의 딸과 혼인하여 3남 2녀를 두었다.

5) 洪樂純, 위의 책, 권10 「先人在翰苑, 以史事得嚴旨, 後不就職, 黜爲省峴督郵. 時朝廷行蕩平之術, 小人用事, 義理久晦. 先人歎曰 ‘以此時進用恥也.’ 自庚戌至庚申, 連有職輒辭. 時尹公心衡亦不仕, 與先人相知最深, 時時來往甚樂, 尹公嘗居漢上, 故曰漢濱退叟.」

(重修記)를 작성하며, 절의를 선택한 그의 값진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최수복(崔受復) 집안에 소장된 송시열의 글자에 대한 서문에서, 조선은 명나라에 무궁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오랑캐를 토벌하는 것이 만세의 큰 의리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북벌론의 현실성을 비웃는 무리에게 통탄을 금하지 못하였다.<sup>6)</sup>

또 그는 신임의리를 강조하며 당평론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외조부 유두기(兪斗基)가 저술한 「신임변무편(辛壬卞誣編)」에 서문을 쓰며, 신임옥사가 실로 영조를 무고하여 발생한 옥사임을 밝히고 주범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였다. 사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남인, 소론과 타협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남인과 소론은 그 종자가 악독하고, 그 마음은 어그러져 있다. 그 행실은 흉악하며, 그 죄상은 또한 십 세가 지나도 용서할 수 없다. 남인과 소론은 우리 임금의 적이며, 종묘의 역신이며, 신민의 원수이니 천하 후대가 몹시 근심으로 여긴다. 남인과 소론은 한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없고, 하나의 하늘을 함께 이고 지낼 수 없다. 그런데도 간사하고 음흉한 자들이 당평의 말을 부르짖고 있다. 당평이란 충신과 역신을 합쳐 남인 소론과 어울리며, 시비를 무시하고 임금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세도를 의혹되게 하니 옛 성인이 건극(建極)한 당평의 의미가 아니다.<sup>7)</sup>

인용문은 『선태사사초(先太史史草)』에 대한 서문이다. 이 책은 부친 홍창한(洪昌漢)이 1730년 기사관 재직 중 작성한 당화(黨禍)에 관한 사

6) 洪樂純, 위의 책, 권2 「仙源先生旌門重修記」, 권1 「崔善初家所藏尤庵先生大字序」

7) 洪樂純, 위의 책, 권1 「先太史史草序」 “由此觀之, 南少者, 其種狼毒, 其心悖亂, 其行事兇逆, 其罪犯亦十世不可宥也. 南少者, 吾君之賊, 宗祏之逆, 臣民之讐, 天下後代之所腐心者也. 南少者 不可與共中國, 不可以戴一天者也. 乃陰邪之人, 倡爲蕩平之說, 蕩平者, 合忠逆調南少蔑是非蠱君心惑世道, 而非古聖人逮極之謂也.”

초로 석실서원(石室書院)에 보관해 둔 것이라 한다. 이 글의 서문에서 홍낙순은 역사란 포폄을 통해 권선징악의 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제하에 사초에 기록된 남인과 소론의 극악한 행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탕평책의 허위를 비판하였다.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홍낙순은 탕평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일관하였다. 그는 별도로 「만안편(萬安篇)」을 서술하여, 지금의 탕평책은 대의(大義)를 망각했다는 점에서 화의론(和議論)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인식을 동류 문인들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양천(李亮天, 1716~1755)에게 탕평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권하면서 홍낙순은 자신들을 “의리를 권면하고, 충절에 힘써 스스로 고도(古道)를 행하는 자”라 자칭하였다.<sup>8)</sup> 홍낙순에게서 대명의리와 신임의리를 견지하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 고도(古道)를 실현하는 길이나 다름없었다.

비록 이윤영, 이인상처럼 과거공부를 접고 은거를 결심하지는 않았지만, 대명의리, 신임의리가 실현되지 않는 조정을 보며 홍낙순은 젊은 시절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특히 그의 벗 이양천이 1752년 홍문관 교리로 재직 중 소론 이종성(李宗城)의 영의정 임명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흑산도로 유배 간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였던 요순(堯舜)의 일화를 나열하며 정치에서 공(公), 명(明), 경(敬), 직(直), 화(和)와 같은 고도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분개하였다.<sup>9)</sup>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에서 홍낙순은 김상숙(金相肅)과 함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하는 삶을 꿈꾸기도 하였다.<sup>10)</sup>

8) 洪樂純, 위의 책, 권7 「與李修撰亮天書」, “吾輩唯勉以義理, 勵以忠節, 自謂行古之道者也.”

9) 洪樂純, 위의 책, 권1 「送李功甫謫中序」

10) 洪樂純, 위의 책, 권1, 「明陵唱酬錄序」, “吾二人者, 無求於世, 赴舉覓官非素志也,

이렇듯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35세 이전 홍낙순은 주변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문예를 나누고 우의를 다지는 데 힘썼다. 그는 따로 「우설」을 지을 만큼 우정을 인륜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하였다. 또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김이곤(金履坤), 김상숙, 이보행, 이운영, 이양천 다섯 벗에 대한 봉우시를 남겼다.<sup>11)</sup> 잡록(雜錄)에서도 별도로 다섯 벗과의 만남, 대화, 그들의 문장 및 풍류를 소상히 나열하였다. 홍낙순은 이들과 자주 시문, 서화를 주고받으며 정치적, 문예적 지향을 공유하였다.

김이곤(1712~1774)은 장동 김문 출신으로 청풍계(淸風溪)의 주인이기도 하였다. 41세에 음직으로 동궁시직(東宮侍直)에 제수되었다. 홍낙순은 김이곤과 그의 아우 김이복, 그리고 청류계 문단을 후원한 김종후, 김종수 형제와 함께 정릉을 노닐던 중, 김창업의 서자 김윤겸(金允謙)이 이들의 유람을 화폭으로 담아낸 일화를 「유정릉기(遊貞陵記)」에 기록하였다. 또 유풍계기(遊風溪記)은 청풍계의 주인 김이곤을 방문하여 김창업의 흔적을 탐색한 기록이다.

김상숙(1717~1792)은 광산 김씨 김장생의 후손이자 영의정 김상복의 아우로 그 자신은 정계를 멀리하며, 서예에 힘썼다. 이인상, 이운영과도 활발하게 교류한 바 있다. 홍낙순은 이우찬(二友贊)을 지어 김상숙, 이보행과의 우의를 드러내었으며, 명릉창수록서(明陵酬唱錄序), 「서원소집기(西園小集記)」에서는 김상숙과 교류하며 시문을 주고받은 추억을 기록하였다. 답김계윤서(答金季潤書)에서 홍낙순은 자신을 최립, 김상

---

願得一邱一壑，與之同歸，我家兩室，爾食我殮，竝耦而田，共書而讀，巖然塵埃之外，以便其身，安其心，此足以樂以忘死。雖三公之尊，千駟之富，不以易此矣。李功甫嘗謂余曰 久居城市間，鬱鬱意不適思，與子遊郭外幽靜之處，論詩觀書，旬日而歸，猶足樂乎。其後各以故未果而已。功甫登上第言事遠謫去，今日之會邈不可致，良可歎也。”

11) 洪樂純, 위의 책, 권11, 「重陽日 獨坐讀杜工部存沒詩, 有感作詩寄季潤」, 1761년 작으로 추정된다.

숙을 한석봉에 비유해, 각자 문장과 서예에 정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보행(李普行, 1718~1787)의 본관은 용인으로 대사간,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그의 숙부 이의철(李宜哲)은 이재의 제자인데 홍낙순의 부친 과도 우의가 깊었다. 경술과 덕행으로 명망이 높았으며 대제학에 제수되었다. 이보행은 어린 시절 구양수의 문장을 좋아하였으나, 문장에 힘쓰지 않았다 한다. 홍낙순의 「이우찬(二友贊)」에는 의리를 내세우며, 거리낌 없이 간언을 올리는 이보행을 형상화하였다.

|       |                    |
|-------|--------------------|
| 有兀其骨  | 우뚝한 골격             |
| 有燁其目  | 빛나는 눈              |
| 獨立千古  | 홀로 천고에 서서          |
| 揮斥八極  | 팔방을 자유로이 다니네       |
| 文章小技  | 문장을 소기로 여겼으니       |
| 唐宋猶薄  | 당송을 가볍게 생각했지       |
| 君臣朋友  | 군신 봉우 간            |
| 嗜義如狂  | 미친 듯 의리를 좋아하고      |
| 人技若己  |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로 여겼으니 |
| 不能是矜  | 본받기 어렵네            |
| 森森白刃  | 삼엄한 칼날             |
| 見者魄喪  | 보는 자들은 혼비백산        |
| ...하략 |                    |

이윤영(1714~1759)과는 1755년 이후 깊은 교의를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이윤지단릉외사서(李胤之丹陵外使序)는 이윤영이 단릉에서 5년

12) 잡록에는 이윤영 만년에 깊은 교분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홍낙순이 이윤영에게 증여한 시문의 창작시기가 55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윤영이 1755년 단릉에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본격적으로 교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안 노닐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기록한 단릉외사(山史)에 대한 서문이다. 부해시서(浮海詩序)는 이운영이 유람 중에 배가 표류하여 사생이 나뉘는 중에서도 분향하며 지은 10편의 시작품에 대한 서문이며 「송이운 지유금강산서(送李胤之遊金剛山序)」는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나는 이운영을 배웅한 글이다. 두 글 모두 1756년 작으로 추정된다. 이운영의 누대 옥호(玉壺)와 자신의 거처 대릉(大陵)의 글자를 따서 함께 창수한 시를 모아 「호릉창수록(壺陵唱酬錄)」을 만들기도 하였다. 「선호기(仙壺記)」는 신선과 같은 삶을 사는 이운영의 일상을, 「수정루기(水晶樓記)」는 이운영의 서루에 대한 기문이다. 또 1757년에 이운영이 귀양 가는 부친을 따라 수원으로 떠나자 홍낙순은 자신의 독서법을 정리하여 그를 권면하기도 하였다.(送李胤之之其尊大人隋城謫所序) 불과 5년 정도의 짧은 교유기간이었지만, 이운영의 청절(淸絶)한 삶은 홍낙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양천은 박지원의 처숙(妻叔)으로 그에게 『사기』를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홍문관 수찬, 교리를 역임하였다. 1752년에 흑산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가 1755년에 풀려났지만 얼마지 않아 사망하였다. 홍낙순은 “격렬한 동한의 청의(淸議), 웅대한 서한의 문장.”<sup>13)</sup> 로 시작하는 만시로 이양천의 절개와 문장을 기렸다. 이양천은 생전에 홍낙순에게 문장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이상의 인물들은 노론 준론계의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문예에 남다른 관심과 지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홍낙순은 이들을 비롯한 붕우들과 함께 문예를 향유하는 즐거움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꼽았다.<sup>14)</sup> 홍낙

13) 洪樂純, 위의 책, 권10 「挽李功甫學士 一」, “激厲東京議, 沈雄西漢文, 長圖催短景, 萬恨鬱孤憤, 澹泊心期在, 蕭條涕淚紛, 篋中檢詩草, 更覺襲餘芬.”

14) 洪樂純, 위의 책, 권7 「與子順兄」, “數日前金厚哉來, 寒暄外不一言, 則抽架上太史書讀之, …(중략)…金仲受牽輿秉燭持二稚來, 其風流亦可尚也, 或枕服, 或雜坐, 論心緒, 話詩文, 形骸兩忘, 爾汝相加, 不知世間何樂, 可以易此, 弟窮老厄困, 有

순의 우의는 당시에도 남다른 면이 있었는지, 어떤 이가 그에 대해 “문장이 좋아하고 의기투합하기를 좋아한다.(好文章, 好意氣然諾)”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에 홍낙순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어릴 적에 태사공의 책을 읽고는 그 박대하고 웅장하며, 깊고 정밀하며 신이 하게 변하는 것이, 육경 이후로 새로이 경지를 열어 우뚝하게 여러 문장가에 으뜸이 된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태사공의 문장을 좋아하여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세상일을 더 많이 겪어보니, 세상 사람들이 좀스럽게 높은 절개 없이 이해만을 좇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일정함이 없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기투합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문장이나 의기는 모두 제가 가진 바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바는 비록 감히 옛 것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또한 지금과 같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sup>15)</sup>

홍낙순은 우뚝한 사기의 문장을 보고 이를 학습하게 되었으며, 일정한 절개 없이 이해만을 따르는 당시 세태에 염증을 느끼며 의기를 숭상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아직은 좋은 문장과 의기를 이미 획득하였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목표를 지금에 두지 않겠다는 지향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홍낙순의 우정론은 의리가 실현되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 그의 교유는 벗과 함께 “의리를 권면하고 충절에 힘써 고도(古道)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한편 “호문장”이라는 인용문의 평가에서 보듯 홍낙순은 평소 문장에 힘썼다. 심익운(沈翼雲)은 김상복, 김상숙이 중심이 된 교유 모임을 회고

文字朋友之樂獨有之, 天亦愛其窮而以是償之耶? 此事不可不使兄知之也.”

15) 洪樂純, 위의 책, 권7 「與某書」 “年少時讀太史公書, 愛其博大高壯沈密神變, 六經以外, 自關堂與, 卓爲諸家之宗. 於是好而欲學. 年益長涉世事益多, 厭世人齷齪, 無高節逐利害, 朝夕傾詐反覆無恒. 於是好意氣然諾, 然皆非僕之所存也, 其所存者雖不敢冀於古, 亦不欲同乎今.”

하면서 문장으로는 홍낙순이 가장 뛰어났다고 하였으며<sup>16)</sup> 이윤영은 홍낙순의 문장에 대해 ‘문장이 족히 조선을 고무(鼓舞)할 수 있다(嘗稱余文曰文章足以鼓舞朝鮮)’<sup>17)</sup> 고도 하였다. 실록에는 그의 문장의 아름다움이 당세의 으뜸<sup>18)</sup>이라고 한 황경원의 말이 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홍낙순의 정치적 입장과 교유관계, 그리고 문장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홍낙순은 18세기 중반 청류계 문단을 살펴볼 때 중요한 인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3. 홍낙순의 문학론

#### 1) 진한고문을 통한 기(氣)와 의(意)의 획득

여이수찬양천논문(與李修撰亮天論文)은 이양천에게 보낸 서신으로 홍낙순의 문학적 지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논쟁적인 글이다. 이양천이 수찬을 한 것이 1750년경이고, 문장을 학습한 지 10년이라는 홍낙순의 표현을 참조할 때 이 글은 홍낙순 나이 20대 후반에 저술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서신은 그가 김종수에게 문장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양천에게 의견을 구한 것이다. 김종수는 홍낙순의 글이 너무나 법도가 없고 부화하며 방사(放肆)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원인으로 멀리는 구양수의 부앙(俯仰), 곡절(曲折), 위여(委餘), 전칙(典則)한 뜻을 배우려 하지 않고, 가까이로는 김창협(金昌協)의 미연(媚軟), 한어(閑雅)한 자세를 배우지 않았음을 들고, 홍

16) 沈翼雲, 『百一文集』, 「耻齋聯句詩序」, “前六七年, 稷下之遊, 盛矣. 以顯則自然相公, 以文則伯孝, 以詩則鳳麓, 以書畫則坏窩眞宰, 以賓客則雪岱. 凡良辰佳景, 飲食相招, 隣里相會, 會必有作, 作必有和. 吾與蠡齋迭爲之主, 獨耻齋公, 遊宦西南, 一未嘗與焉.”

17) 洪樂純, 위의 책, 권8 「雜錄」

18) 국역 조선왕조실록, 영조 35년 기묘(1759) 11월 19일

낙순의 문장이 끝내는 거친 데로 빠져들었다고 분석하였다.<sup>19)</sup> 김종수의 발언은 홍낙순의 문장의 김창협과 구양수라는 노론계 문단의 공통적 전범을 따르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홍낙순은 우선 그의 말이 옳다고 수긍을 하면서 자신의 문장 학습 이력과 문학관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선진양한과 당송의 여러 문인들의 글에 대략 그 흐름을 섭렵하고 근원을 살피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문장과 시대는 함께 쇠하길 마련이니, 오늘에 살면서 옛날을 본받는 것은 실로 망령된 것입니다. 하지만 뜻이 큰 지는 학업이 광대하고 눈이 낮은 자는 처지가 비루해집니다. 이 때문에 유자는 비록 성인을 기약하더라도 겨우 사람 노릇하는 데 그칠 뿐입니다. 지금 문장을 하되 당송만 본받는다면 끝내는 조선인의 비천한 문장을 하는 데 그치게 될 뿐이니 어찌 진보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이 때문에 한(漢)의 문장을 하되 그 기(氣)를 얻지 못해도 옛 뜻을 간직하게 되어 당의 문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당의 문장을 하되 옛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제도는 불 만하므로 송의 문장에 가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송의 문장을 하면 다만 소리와 웃는 모양의 말단만 취하여 옛 기가 사라지니, 그러므로 그 법도는 천한 규모일 뿐입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기(氣)와 의(意)를 우선하고, 편장자구(篇章字句)의 법은 그 다음입니다. 아. 제가 어찌 감히 당송을 하랴게 여기겠습니까. 한유의 박후함, 유종원의 고결함, 구양수의 뛰어난, 소동파의 웅장함은 모두 지극한 것이니, 문장의 법도가 당송에 와서 크게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의 폐단은 교묘한 것이며, 교묘한 것의 폐단은 자질구레한 것이니, 자질구레한 것이 극에 달하면 어찌 아무 것도 없음을 이르지 않겠습니까.<sup>20)</sup>

19) “昨日金上舍鍾秀來見僕文，以爲太不拘檢，太無法度，浮率放肆，蓋其意以爲遠之不學歐陽氏，以得其俯仰曲折委餘典則之意，下之不學金農巖以求其媚軟閑雅之態，卒有至於荒蕪云爾，細究其言，誠不誣矣.”

20) 洪樂純, 위의 책, 권7 「與李修撰亮天論文」, “先秦兩漢唐宋諸子之文, 粗能涉其流而窺其源, 嘗自以爲文與代衰, 居乎今而欲效古者誠妄也. 然志大者業廣, 眼低者處卑, 是故儒者雖期於聖, 堯止可人. 今爲文而只法唐宋, 終必爲東人賤窺模而止耳. 何能進步哉...(중략)... .是以爲漢而未得其氣, 古意猶存, 故曰近於唐, 爲唐而

이 글의 논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은 진한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귀고천금(貴古賤今)의 문학사 인식을 전제로 한다. 즉, 시대에 따라 문장은 쇠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고문을 전범으로 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겠지만, 홍낙순은 문장을 배우는 자들은 그 목표를 높게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당송을 전범으로 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당송 문학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를 전범으로 하였을 때 그 성취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 문단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진한을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진한 문장은 불가변한 전범이 아닌 일종의 대안적 전범인 것이다.

다음으로 고문을 통해 기(氣)와 의(意)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편장자구법을 획득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그는 당송 고문의 법도, 편장자구법에 심혈을 기울일수록 교묘하고 자질구레한 폐단이 생겨, 오히려 문장의 기운과 깊은 뜻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편장자구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노론계 선배 문인과는 상반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 김창협, 안석경 등 노론계 문인들은 주희의 경전해석 방식에 의거해 편장과 자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주희는 텍스트 전체를 단순하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 구조에 근거하여 의미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독서법을 제시하였다. 즉 텍스트를 단(段) 단위로 분절한 다음 각 단을 숙독해서 다시 하위 구조를 파악하고 구절, 글자를 정밀하게 이해하는 방식의 독서법이다.<sup>21)</sup> 김

未得古意, 制度猶可觀 故曰近於宋, 爲宋則徒取於聲音笑貌之末而古氣索然, 故其所謂法者, 乃爲賤窺模而矣...夫古文者, 氣意爲先, 篇章字句之法, 次之. 嗚呼僕豈敢小唐宋也, 博厚如韓子, 峭潔如柳氏, 歐之能, 蘇之雄, 皆其至者, 文章之法至是而大備矣. 然法之弊巧, 巧之弊微, 微之極, 則幾何不至於無也.”

21) 朱熹, 『朱子語類』 권10 「讀書法上」, “看文字, 須大段著精彩看. 從起精神, 樹起筋

창협, 안석경 등은 주희의 독서법을 경전뿐 아니라 여타의 문장으로 확장해서 적용해 나갔다. 그들은 『사기』, 한유, 구양수의 문장을 비롯한 진한과 당송의 고문을 단을 나누고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독해하였으며 자구의 운용 방식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sup>22)</sup>

이에 반해 홍낙순은 편장자구법에 대한 이해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그의 독서법에서도 확인된다. 1757년 홍낙순은 이운영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독서법을 설명하였다. 그는 독서법은 총 6단계를 거친다. 우선 반복 독서하여 그 구두를 먼저 깨닫는다. 둘째, 자세히 음미하여 그 대지(大旨)를 깨닫는다. 셋째, 편, 장, 구, 자를 파악한다. 넷째, 기를 평탄하게 하고 마음을 비워 성독하되 문장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하며, 창자(唱子)처럼 감정을 신는다. 다섯째, 책과 내가 혼연일치되도록 읽는다. 마지막으로 읽어 그 정(情)을 얻는다. 이러한 그의 독서법은 최종적으로 작자와 교감하여 그 정신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23)</sup> 이를테면 홍낙순의 독서는 분석적, 비판적인 독서가 아닌, 심미적, 감상적 독서이라 할 수 있다. 독서 과정에서 구두와 편장구자를 파악하는 단계가 있지만

---

骨, 不要困, 如有刀劍在後一般, 就一段中, 須要透. 擊其首則尾應, 擊其尾則首應. 方始是. 不可按冊子便在, 掩了冊子便忘却; 看注時便忘了正文, 看正文又忘了注. 須這一段透了, 方看後板.”; “大凡看書, 要看了又看, 逐段逐句逐字理會.”

22) 윤지훈, 「18世紀 農巖季 文人の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23) 洪樂純, 위의 책, 권1 「送李胤之之其尊大人隋城謫所序」, “胤之喜讀書, 吾請以讀書之法贈焉. 年少時, 讀太史公書, 始讀也, 往而復之, 迎而解之, 以通其句讀. 於是又讀之咀之嚙之, 灑而會之, 以統其大旨. 於是又讀之, 其合而爲篇, 更端而爲章, 錯綜爲句, 單行爲字者, 必求其法. 於是又讀之, 平其氣, 虛其心, 聲之出乎吻也, 高下疾徐, 隨其文, 文徐則聲爲之徐, 文疾則聲爲之疾, 其喜也聲遠而掄揚, 其悲也聲清而幽怨, 其變而曲折也, 聲俯仰徘徊, 其憤也, 聲激而怒如唱者之中乎琴瑟, 而不奪倫也, 心聲相和愈鼓愈揚, 況乎若有得其神. 於是又讀之, 浩浩乎書與我爲一津津滄滄, 不食而飽, 不樂而樂也. 然後又讀, 他人之文, 亦足以得其情也. 夫古人雖去, 其神在書, 吾之神猶古人之神, 苟爲邂逅而相遇, 古今人豈遠哉.”

일정한 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애초에 진한고문에 일정한 법도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다시 이양천에게 보낸 서신을 살펴보자.

이른바 진한의 도는 무엇일까요? 그 기를 두터이 하고, 그 뜻을 심대하게 하며, 그 말을 굳건히 하여 언어의 아름다움, 문장의 교묘함에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장에 어찌 정해진 법도가 있겠습니까. 크게 말할 때는 크게 쓰고, 작게 말할 때는 작게 씁니다. 완곡한 것은 평직하게 바뀔 수 있고, 어지러운 것은 나뉘져 우뚝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 횡으로 혹 종으로 혹 앞으로 혹 뒤로 하여, 불가한 것이 없습니다.<sup>24)</sup>

홍낙순은 진한의 도를 후기(厚氣), 심지(深旨), 건사(健辭)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건사”는 이 글 후반부에 “사를 평탄히 하는 것(平其辭)”으로 변주된다. 진한고문을 추구하던 문인들이 험벽하게 자구를 운용하며, 진한고문의 미감을 인위적으로 회복하려 했던 것과 달리 홍낙순은 교묘하게 언어와 문장을 조직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보았다. 이는 원래 진한고문의 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한의 도는 의미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서술하기에 문장에 정해진 법도가 없다. 이는 앞서 자신의 문장에 대해 “너무나 법도가 없다”고 한 김종수의 지적에 대한 항변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일정한 법도가 없기 때문에 편장자구의 법도를 따져가며 고문을 학습하고 글을 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것이다. 홍낙순은 언어표현이나 작법이 아닌, 옛 문장가의 기

24) “夫所謂秦漢之道何也，厚其氣，深其旨，健其辭，不屑屑於言語之媚，文章之巧耳。且夫文章，豈有定法哉。大言則大書之，小言則，小書之，逶迤者，可變爲平直，紛亂者，析以爲峻拔，或縱或橫，或前或却，無不可者。”

25) 홍낙순은 이러한 자신의 문학론과 문장에 대해 주변 문인의 지지를 받기를 위하여 이양천뿐 아니라 이보행(李普行), 홍낙명(洪樂命), 김이곤(金履坤)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와 의를 획득하는 것을 고문 학습의 최종 목표로 두었다.

## 2) 실(實)을 통한 정(正)의 제시

홍낙순은 진한고문 중에서도 사마천의 『사기』를 최고의 전범으로 꼽았다. 그는 “태사공의 문장은 문장의 성(聖).”이라 하였다.<sup>26)</sup> 앞서 언급한 이운영에게 준 독서법은 『사기』를 읽은 경험을 통해 정립한 것이다. 그는 김이곤과 함께 사기를 읽으며 완전히 태사공에 혼연일치되었던 경험을 기록하기도 하였다.<sup>27)</sup> 『사기』에 심취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홍낙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 나이 열대여섯 때 태사공의 글을 읽었다. 가르치는 분이 말하기를, “이 책은 굳건하고 기력이 있다. 풍신(風神)이 힘차며, 서사가 강개(慷慨)하여 배울 만하다. 황명 왕세정(王世貞)과 이반룡(李攀龍), 근세의 최립(崔嵬), 정두경(鄭斗卿) 무리가 본받아 글을 지어, 그 문장이 대가가 되었다.” 하였다. 내 때때로 읽고는 또한 이와 같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고문사를 배워 구양수의 글을 좋아하였는데 이윽고 그만두었다. 위로는 반고, 좌씨전, 한유의 문장을 엿보았으나 얻는 것이 없었고, 아래로는 황명 제자를 실컷 보아, 왕세정, 이반룡을 배우처럼 따라하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었다. 그 후 다시 사마천을 읽었는데 15, 16세 때보다 끝내 더 나은 것이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다르지 않았다.

일찍이 태소(太素) 유언순과 문장을 이야기할 적에, 태소가 말하기를, “태사공의 문장은 문장의 지극한 것이다. 글을 쓰되 태사공같이 쓴다면 비록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하여,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반드시 깊이 믿어 자득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토록 좋아하겠는가. 이미 믿고 좋아하여, 배워서 글을 지으니 또한 기고(奇古)하여 자립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

26) 洪樂純, 위의 책, 권7 「與李修撰亮天論文」, “僕深好太史之文, 蓋太史之文, 文之聖者, 非謂其必學而至也. 蓋取其氣之厚, 旨之深, 無刻鏤之能也.”

27) 洪樂純, 위의 책, 권7 「與子順兄」

고 하였다. 그 뒤 몇 개월 뒤 태소가 죽자, 내가 다시 사마천의 『사기』를 가져와 깊이 읽고, 고요히 생각하기를 오랫동안 하여 지난번 대사공을 안 것이 실로 깊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대개 그 글은 하수와 한수같이 규모가 크고 해와 달처럼 희고 깨끗하다. 바람과 구름처럼 합쳤다 흩어지고 교통처럼 변화한다. 첩첩 언덕과 고개처럼 그 뜻이 깊어 사람들이 배회하여도 쉽게 엿보지 못하게 한다. 법도 밖에 제도를 사용하여, 한 글자 한 단어가 실로 종종 기이한 것을 내고 묘한 것을 다투니, 이것이 사기의 대체이다. 이 때문에 좌씨는 은미하고 오묘하지만 기량이 미치지 못하고, 반고는 치밀하고 세차지만 신력(神力)에서 손색이 있고, 한유는 넓고 후하지만 그 밝음을 얻지 못하였다. 이로 보건대 대사공의 문장이 지극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풍신과 강개함은 그림자이지 신(神)이 아니다.<sup>28)</sup>

인용문은 그의 벗 유언순(兪彦淳, 1715~1748)의 문집에 대한 서문이다. 유언순은 홍낙순뿐 아니라 이양천, 김상숙, 이인상과 각별한 우정을 나눈 이이다. 유언순이 34세 나이에 일찍 세상을 뜨자 이양천이 그의 문집을 엮었고, 홍낙순이 서문을 써주었다. 하지만 이 글은 문집의 서문이라기 보다는 홍낙순의 문장 학습 과정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처음 『사기』를 학습하였을 때, 전후칠자, 최립, 정두경과 같이 사

28) 洪樂純, 위의 책, 권1 「兪太素文集序」 “余年十五六時, 學讀太史公文, 教之者曰, 是書健而有氣力, 風神適逸, 序事慷慨, 可學也. 皇明王李與夫近世崔簡易鄭東溟之屬, 效而爲之, 故其文爲大家. 余時讀而知之亦如此, 其後學爲古文辭, 好歐陽氏文, 已而棄之. 上規班史左氏傳韓文而無所得, 下而放觀於皇明諸子, 至王李刻劃如偶人, 不滿意而止. 復讀司馬其知終無加於十五六時也. 問之人亦無異焉. 嘗與兪太素談文事. 太素曰, 太史之文, 文之至者. 爲文而如太史雖死可也. 余異之以謂是必深信自得者, 不然其好之何若是耶. 是旣信而好之, 其學而爲文, 亦必有奇古自立者. 後數月太素死, 余更取馬史深味靜思, 久而後悟, 向所知太史公, 固不深耳. 蓋其書, 規模際河漢, 皎潔爭日月, 合散如風雲, 變化如蛟龍, 深意密旨, 如重崗複嶺, 使人徘徊而未易窺. 用制度於繩尺之外, 至若單言隻字, 固往往出奇爭巧, 此其大體矣. 是以左氏微奧, 量有未逮. 班固緻悍, 神力遜焉, 韓子博厚, 未得其皎. 由此觀之, 太史之文, 非至矣乎. 所謂風神慷慨者影而非神也.”

마천의 기력, 풍신, 서사를 배우고자 하였다. 이후 반고, 한유, 구양수를 거쳐 왕세정, 이반룡의 문장까지 학습하였지만 그 성취가 높지 않았다. 이때 『사기』에 심취하였던 유언순의 발언을 상기하고 다시 『사기』를 정독하고는 『사기』의 대체는 큰 규모와 변화, 깊은 뜻, 일정한 법도가 없는 제도임을 깨달았다. 앞선 언급한 힘찬 풍신, 강개한 서사는 그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사기』야말로 여러 시대의 문학의 성취를 아우르는 최고의 전범이라 평가하며 죽은 벗 유언순의 말에 동의를 표하였다.

홍낙순의 『사기』 추송은 다소 유별나 보이지만, 실상 『사기』는 산문 작가에게 일반적 전범으로 인식되었고 『사기』의 문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조선 후기에 『사기』는 문장 학습의 전범으로 당송고문론을 주장하는 문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공유되어 왔다. 흥미로운 것은 홍낙순이 『사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내온 편지에 도학(道學)과 사학(史學)을 나누어 달리 본 것은 사(史)를 모르는 것뿐 아니라 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학과 사학이 나뉘진 것이 없어 도술이 천하에 통일되었고, 사람에게 다른 말이 없고 선비에게 다른 행위가 없었습니다. 배워 알고, 행하여 실천하여 실제로 얻음이 있을 뿐입니다. 도학과 사학이 나뉘어져 도술이 천하에 나뉘어져 사람들이 달리 말하고 선비가 달리 행하여 분분하게 각각 사견(私見)이 생겨 명실(名實)과 내외(內外)가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백대에 좋은 정치가 없는 이유입니다. 박식하고도 고도(古道)를 좋아하는 그대가 어찌 이를 생각지 못합니까. 청컨대 한마디 하자면, 육경이란 도학의 근원입니다. 육경 중에 『서경』, 『춘추』는 기사(記事)의 책이니, 기사란 사(史)라고 합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은 논학(論學)의 책이니, 논학은 도(道)라 합니다만 그 실체는 하나입니다. 사 또한 도이고 도 또한 사입니다. ....(중략)...이치는 홀로 행해지지 않고, 반드시 사물에 깃들니다. 사(史)란 사물의 총체입니다. 지금에는 다만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여 사물 사이에서 구하지 않고는 한갓 시선을 낮추고 기운을 내리고서는 우뚝하게 홀로

앞자 때로 옛 경서 한 두 행을 읽고는 궁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리란 과연 어떤 도를 이루는 것입니까?<sup>29)</sup>

죽형 홍낙명(洪樂命)에게 보내는 답신이다. 앞서 홍낙명은 『사기』 독서에 빠져 있는 홍낙순에게 도학에 힘쓸 것을 충고했던 모양이다. 홍낙순은 사학과 도학은 애초에 하나라는 도사일치론으로 그의 충고에 답하였다. 육경에는 도와 사가 함께 공존한다. 하지만 후대에 도와 사가 나뉘어 천하에 도술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천하의 도술이 이미 분열된 후대에 나온 사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글에서 홍낙순은 충분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통감(通鑑)』을 저술한 주희의 공로를 찬미하는 언급을 볼 때, 결국 『사기』에 대한 독서가 도학을 궁구하는 데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 서신은 결국 『사기』에 심취하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 글의 문법과 논리 체계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삼대 이후에 도와 문이 분리되었다”는 주희의 문학사 서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주희의 문학사 인식은 조선 문인에게 상식적인 것으로 통용되었다.<sup>30)</sup> 홍낙순의 논의는 주희의 문학사 서술을 원용하되 문을 사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29) 洪樂純, 위의 책, 권7 「卷子順兄弟二書」, “來書以道學史學分以異之, 不但不知史也. 亦不知道也. 蓋古者無道學史學之分 而道術爲天下一, 人無異言, 士無異行. 學而知之, 行而踐之 有所實得而已. 自道學史學分, 而道術爲天下裂, 人異言, 士異行, 紛紛然各私己見, 名實內外, 不能爲一, 此所以百代無善治者也. 以哀博識好古, 曾未及此乎. 請一言之, 六經者道學之宗也. 六經之中, 書春秋記事之書也, 記事者謂之史, 論孟庸學, 論學之書也. 論學者, 謂之道, 其實則一也, 史亦道, 道亦史也, ...중략...蓋理未能獨行, 必寓於事物, 而史者事物之淵藪也. 今者獨窮天下之理, 而不求諸事物之間, 徒低視下氣, 兀然獨坐 時諷古經一兩行而曰 窮理 窮理者是果成何道也.”

30) 『朱熹集』, 『讀唐志』, 박경남, 「16·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의 경향」,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8 재인용

다. 또 그 스스로 사마천의 『사기』를 최고의 문장 전범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의 도사일치론은 곧 도문일치론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시대를 전후하여 조귀명(趙龜命), 유한준(兪漢雋) 등이 도문분리론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의 논의는 다소 보수적으로 느껴진다. 홍낙순은 도와 사, 문을 동일한 범주에서 이해하며, 궁극적으로 사학, 문학은 천하의 보편적 이치를 전달해야 한다는 그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를 사물의 총체로 명명한 데서 알 수 있듯, 사(문)을 이치를 궁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가치를 부각하려는 노력도 드러난다. 요컨대 그의 도사일치론은 보수적인 재도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문)의 가치, 나아가 이에 전념하는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는 데 그 방향이 놓여 있다.

『사기』를 재도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양상은 아래 인용문에서도 확인된다.

무릇 육경에서 양한, 양한에서 한유, 구양수에 이르기까지는 문장의 바른 것이다. 장자에서 불경까지, 불경에서 소동파까지는 문장의 바르지 않은 것이다. 바른(正) 데서 깨닫는 자는 그 문이 진실(眞)되고, 바르지 않은 데에서 깨닫는 자는 그 문장이 거짓된다(僞). 거짓된 것은 문장의 적(賊)이다.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과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실물(實物)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글은 이(理)가 실(實)하고, 사마천, 반고의 글은 그 사(事)가 실하며, 한유, 구양수의 글은 그 언(言)이 실하다. 실리(實理)이므로 일월이 비치고, 풍우, 상로가 내리는 듯하다. 실사(實事)이므로 치란(治亂)과 득실(得失), 사람의 어둡과, 불초함, 문물 제도가 모두 갖춰져 있다. 실언(實言)이므로 인의(仁義)에 의지하고 사물(事物)에 삼가서 정명(正明)하고 평탄하여 속임도 없고 과격함도 없다, 간혹 출입이 있으나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간다.

저 장자와 불가의 문장은 황당하고 공적하다. 그러므로 천지와 같이 크고도 남음이 있고, 하수, 한수와 같이 움직이면서 다함이 없고, 쟁반의 구슬처럼 내달

리며, 물 속에 비친 달처럼 비어있다. 그 실체는 방탄하고 허무하여, 이치에 어긋나고 쓰임에 위배된다. 그런데 소동파가 그걸 배웠으니 그 문장 또한 제멋대로 내달린다. 실(實)이기 때문에 바르고(正), 허(虛) 때문에 삿(邪)되다. 삿된 것은 바름을 해치기 때문에 적(賊)이라고 하는 것이다. 아! 문장의 도가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한유, 구양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는 그 폐단이 진부함이고, 진한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는 그 폐단이 표절이다. 별도로 장자, 소동파의 길을 달리는 자는 그 폐단이 적(賊)이 되니, 일찍 지는 어여쁜 꽃이 돌피의 알곡보다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며, 날뛰는 손오공이 우아한 고화(古畵)보다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문의 적은 진부하고 표절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심하다. 그렇지만 문장을 하되 진부해지는 것도 잘못이며, 진부한 것을 바로잡으려다 표절하는 것도 잘못이다. 별도로 내달려 도리어 적(賊)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문장을 하는 법도는 그 바름을 얻고 그 진을 깨닫는 것뿐이다.<sup>31)</sup>

인용문은 조귀명 문장에 대한 비평이다. 당시 조귀명의 문장은 독특한 미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전에 스스로 이천보, 황경원, 남유용 등에게 서문을 청탁하였지만, 이들이 모두 거부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홍낙순은 조귀명이 장자, 불가, 소동파의 문학을 배웠으며 이들 문학은 허위(虛僞), 즉 진(眞) 문학이 아니라고 간주하였다. 인용문 하단

31) 洪樂純, 위의 책, 권8 『辨趙東溪文說』, “夫自六經而兩漢, 兩漢而至韓氏歐氏文之正者也. 自莊氏至於佛氏, 佛氏至於蘇氏文之不正者也. 悟於正者其文眞, 悟於不正者其文僞. 僞者文之賊也. 天之所生人之所爲, 皆實物也. 故聖人之文, 其理實, 遷固之文, 其事實, 韓氏歐氏之文, 其言實. 故如日月之照焉, 風雨霜露之施焉, 實事也, 故國之治亂失得, 人賢不肖, 與夫文爲制度, 無不備焉. 實言也. 故依於仁義, 謹於事物, 正明坦夷, 不詭不激, 間有出入, 必返之正焉. 彼莊氏佛氏之文荒唐而空寂也, 故大如天地而有餘, 動如河漢而不窮, 走如盤之珠, 空如水之月也. 其實則放誕虛無乖於理違於用, 而蘇氏學焉. 其文亦橫驚也, 夫實故正, 虛故邪. 邪者害正也故曰賊. 嗟夫. 文章之道豈不難哉, 爲韓歐而不得者其弊也陳, 爲秦漢而不得者其弊也賸, 別驚莊蘇之路者, 其弊也賊. 不知時花之妖不如稊稗之實, 胡孫之跳弄不如古畫之雅. 文之賊, 不如陳且賸也. 雖然爲文而陳者非也, 矯陳而賸者非也. 別驚而反賊者恥也. 爲文之法在於得其正而悟其眞而已.”

에 당송고문과 진한고문을 배워 문장을 하면 진부해지거나 표절을 하는 등의 병폐가 생긴다는 논의는 바로 조귀명의 주장이다. 홍낙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수공을 하지만 허위는 사(邪)로 빠지기 쉽고 사는 정(正)을 해치기에 그 폐단이 진부함과 표절보다 더 심각하다고 반박하였다.<sup>32)</sup>

위의 글에서 홍낙순이 상고적 문학을 지향하였지만 당송대 문학의 성취를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가 전범으로 내세우는 진한고문의 범위가 장자, 불가와 같은 텍스트를 두루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이는 진한고문론을 제출했던 여타의 문인들과 변별되는 점이다. 왕세정(王世貞)이나 유몽인(柳夢寅)은 장자, 불경을 문학적 전범으로 적극 끌어온 바 있다. 진한고문론을 표방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론계 문단에서도 17세기 후반 이후 이들 문장을 학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나갔다. 이의현은 젊은 시절 『장자』를 좋아해서 4, 5백 번이나 읽고 나서 문장을 휘갈겨 써 내려갔던 일을 반성하기도 하였지만,<sup>33)</sup> “문장을 짓는 자가 비록 마땅히 육경에 근본해야 하나 또한 옆으로 참고하여 문기(文氣)를 돕는 것은 무방하다. 다만 그 가운데 의리에 어긋나고 뜻을 해치는 곳에 대해서는 버리고 취할 바를 알아야 된다.”<sup>34)</sup>고 하며 유연성 있는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과 달리 홍낙순은 어디까지나 실(實)이 곧 정(正), 진(眞)이라고 하며, 문장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32) 조귀명 문학론과의 비교 분석은 이경순의 논문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33) 李宜顯, 『陶谷集』 권28, 『陶峽叢說』, “經書爲士之本根, 若多讀得力, 則上可爲學問, 中可爲文章, 下亦不失爲場屋高手. 而余於少時, 意思誤入, 不務爲此, 乃耽讀南華全帙, 讀至五六十遍. 就其中心所喜好者, 讀幾至四五百遍, 至於齊物論則尤酷好之, 不覺手舞足蹈. 讀既, 下筆容易, 頃刻掃盡十紙, 而蛟蚓相雜, 不足觀也.”

34) 李宜顯, 위의 책, 권27, 『雲陽漫錄』, “先秦諸子學術, 雖不醇, 其識見儘高, 筆力又健, 蓋稟隆古風氣, 故開口, 自然如此, 要非以後諸人所及也. 爲文章者, 雖當本之六經, 亦不妨旁參以助文氣, 但其中背理害義處, 則知所去取可也.”

서는 먼저 장자(莊子)를 읽어야 한다는 족제(族弟)의 발언에 대해 장자의 글은 변환 출몰하여 크게는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작게는 터럭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지만 그 도는 유자가 말하는 외도사마(外道邪魔)라 규정하며, 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sup>35)</sup> 홍낙순의 관점으로는 조귀명과 같은 문인은 과도한 상상력과 수사에 매료되어, 노장, 불가의 도가 유가의 도를 해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홍낙순이 추구하는 문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실리, 실사, 실언을 다루는 것이다. 실리는 일월, 풍우, 상로처럼 천하의 보편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치이다. 실사는 실리를 궁구할 수 있는 역사와 현실의 구체적인 사실이며, 실언은 실리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언어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낙순은 각각의 사례로 경전, 사마천, 반고, 한유, 구양수 문장을 꼽았다. 이들 문장은 곧 정(正)에서 깨달아 산출된 것이며, 독자에게 정을 전달할 수 있는 참 문장이다.

이러한 문학론은 그의 스승이자 장인인 김원행의 경학론에 닿아있다. 김원행은 경서나 성리서 이해의 관건으로 실심(實心)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의 실심은 현실의 구체적 마음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마음 곧 성인의 마음으로 해석된다. 실심은 현실에서 실사(實事)·실공(實功)·실사(實士) 등으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데, 김원행은 이상의 개념을 통해 당시의 공허한 학풍을 경계하며, 옛것에서 배우는 자세와 현재의 실용적 관심이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up>36)</sup>

홍낙순 역시 이러한 실의 논리로 문학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조귀명을

35) 洪樂純, 위의 책, 권7 「答族弟」, “外此而論心於恍惚玄遠 求道於清虛澹泊者 是莊老之道 而吾儒所謂外道邪魔者也. 夫爲善無近名, 爲惡無近刑, 此莊子之意而莊子言之, 以開後世之禍者也....莊子之文變幻出沒, 大之盈天地, 小之入毫芒, 不可測識而其大意不過上云兩句云.”

36) 이경구,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 활동」,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비롯하여, 문장에서 실리, 실사, 실언을 담아내지 못하고, 공허하게 문예에 탐닉하는 당시 문사들을 경계하였다. 그가 추구하는 문장은 실을 통해 정을 전달하는 것, 즉 구체적인 사실과 평탄한 언어로 보편적 이치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의 문학론은 재도론에 기반하면서도 문학의 재현 방식에 있어서 구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특이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낙순에게 『사기』는 심의(深意)와 고기(古氣)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 이치를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 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문학적 전범으로 수용되었다.

실의, 실사, 실언을 강조하며, 사체를 중시하는 홍낙순은 보편적 이치와 구체적 사실의 재현으로서의 문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의 문학은 허탄한 상상이나 기발한 사유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통해 보편적 이치, 당위적 규범을 명료하고도 평탄한 어조로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그는 미천한 인물의 절의를 기록하는 데 큰 관심을 두었다. 기생으로 심약(沈鑰)과의 사랑을 지켜, 함께 유배지에서 죽은 취섬(翠巖)의 삶을 기록한 의창전(義倡傳), 연평군(延平君)을 주인집 사위로 맞이하고 그의 인조반정을 도운 노비 이언선의 삶을 기록한 이언선전(李彦先傳), 농민으로 『소학』의 뜻을 삶에서 실현한 임보전(任保傳)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들 글에서 홍낙순은 미천한 이들의 삶 속에서 당위적인 윤리 규범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복잡한 논증이나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인물, 사건을 서사의 방식으로 재현하고, 마지막에 간단한 논평을 첨부하여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였다.

문제는 보편적 이치와 구체적 재현 간의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 이들 글은 단순한 오락으로 소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보찬(蛇譜讚)은 뱀의 계보를 통한 인간의 다양한 내면을 탐색하였으며, 기남악선사사(記南嶽禪師事)은 승려 남악선사의 기이한 수행과 죽음을 통해 유자(儒者)에

제도 엄격한 수양과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천점우해객담해사기(柳川店遇海客談海事記之)에서는 어부들이 목격한 상어, 큰 거북, 용 이야기를 통해 군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상기하며 수신의 중요성을 논하였다. 문체는 이들 기이한 이야기가 그가 강조한 실사(實事)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글의 중심이 기이한 사실의 구체적 기록에 기울어져 있어 그가 제시한 인간의 보편적 이치, 당위적 규범과 같은 주제가 제대로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들 글은 전통적 고문이라기 보다는 패관소품에 오히려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그의 문장에 대해 동류 문인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홍대용은 사부(詞賦)의 공부에만 빠지지 말고 성인의 학문에 매진하라 하였고, 김원행의 아들 김이안은 진한고문, 특히 『사기』를 좋아하는 홍낙순의 취향이 패관잡서로 이어져 괴이한 이야기, 남을 현혹하는 이야기를 즐길 뿐이라 경계하였다.<sup>37)</sup> 이들의

37) 洪大容, 『湛軒書』 내집 권3, 「贈洪伯能說」, “吾友洪子伯能佳士也, 才學精博, 志槩耿潔, 若使之一朝發奮以發軔于聖途, 則何求而不得, 何遠而不到哉. 但其爲善太避於近名, 持身太難於乖俗, 固其所長, 反成其病, 方且沒頭于詞賦之功, 人之所以待之者, 不過翩翩然佳子弟而已. 於是伯能亦安以受之, 恬不以爲愧. 嗚呼, 伯能其欲止於斯而已乎, 吾恐其於向所謂舉業之士, 不幸而近之矣, 舍菟參而甘魚鹹, 棄坦途而奔荊棘, 多見其惑矣.”; 金履安, 『三山齋集』 권8 「贈洪伯能序」, “余友洪君伯能, 性嗜書, 余獨見伯能, 自年十五六時, 已喜觀史, 能道其治亂興衰之大致, 及年益壯, 又益浸淫於古今子集與凡野乘稗官譜牒碑版, 嬉事俚說, 誕妄支離, 無所根據, 莫不目闕手披, 矻矻不倦, 往往出以語人, 傾倒羅列, 如波斯賈胡, 誇說珍藏瓊詭萬狀, 令人眩目. 嗟乎伯能之於爲書, 其可謂勤矣, 而其於道, 何有哉. 豈姑欲習故實採藻華, 以從事於世俗所謂事功文詞者歟, 亦聊以辯博淹貫, 自多於時人, 則又加下矣, 雖然, 伯能年尙少, 志力豪健, 偶一快耳. 不然, 士之所以爲學者, 自有準則, 其道則出於天而存於人, 其性則仁義禮智信, 其情則惻隱羞惡辭讓是非, 其施則君臣父子夫婦兄弟朋友, 其文則詩書易禮孔子曾子子思孟子之言, 由是而推以驗之也易明, 反以求之也易獲, 行之於身安且順, 處之於人和且平, 措之天下國家, 無不得其理, 聖人之道, 如此其尊且懿也, 伯能獨無意於此, 而乃反甘心於彼, 豈其理也哉, 然近觀伯能議論, 亦非不稍覺其然, 而猶復徘徊眷顧, 終不能脫然棄歸, 抑無近於無勇者歟. 夫讀書以求道, 士之所爲業也, 相規切以失友朋事也, 非伯能之志力有足以進於道, 而其失爲可惜, 余之言, 亦何爲及於此.”

비판은 홍낙순 문학론이 가진 위험을 감지한 것이라 하겠다.

#### 4. 18세기 중반 청류계 문단과 관련하여

홍낙순의 문학론은 그가 속한 청류계 문단의 현실적, 문예적 지향과 결을 함께 한다. 기존 연구에서 밝혀졌듯 청류계 문인들은 고도, 고풍에 대한 지향을 공유하였다. 이인상은 스스로를 오활한 유생으로 칭하며, 선진(先秦)시대 이전의 도(道)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고전(古篆)을 학습하고 옛 기물을 애호하였다.<sup>38)</sup> 김상숙은 중요체를 연마하여 서예의 전범을 올려 잡았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듯 홍낙순의 문학론은 노론계 선배들의 지향과 상충되기에 청류계 내부에서조차 그 이견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비슷한 지향이 동류 그룹 내에서 산견된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론을 단순히 개인의 특이한 취향으로 치부할 수 없다. 특히 비슷한 시기 석당(石堂) 김상정(金相定, 1722~1788)은 홍낙순과 상당히 유사한 문학론을 제출하여 주목을 요한다. 김상정은 김상숙과 같은 광산 김씨 집안 출신으로 김중수(金鍾秀)에 의해 홍낙명(洪樂命), 조경(趙暾)과 함께 3대 문장가로 꼽힌 바 있는 인물이다.<sup>39)</sup> 홍낙순의 문집에는 그를 그리는 시(억김치오(憶金稚五)), 이보행, 이연상(李衍祥), 김상정과 함께 김상직(金相直)의 세한정을 방문하여 읊은 시<sup>40)</sup>가 남아있어 두 사람 간의 교류를 확인할 수

38) 김수진(2013), 위의 글, 60~79쪽.

39) 金鍾秀, 『夢梧集』 권6, 「司諫院大司諫金公墓表」 “余於當世文章之士, 有畏友三, 曰豐山洪子順, 曰光山金稚五, 曰豐壤趙景瑞, 子順醇而法, 稚五沈而整, 景瑞簡而明, 三人者, 又皆清修好古, 故與余善.”

40) 권11, 「辛卯臘月之望, 與李易甫李天汝金稚五會金養汝歲寒亭分韻共賦, 余得言字」, 이밖에도 각각의 문집에 「우설(友說)」, 「우난(友難)」이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있다. 그는 홍낙순과 마찬가지로 진한고문으로 문학의 전범을 교체할 것을 누차 강조하였다.

저는 그대가 육경에 근본하고 제자를 참조하여, 진한에 근원하고 당송을 지류로 삼아 의연하게 고인으로 스스로 기약하기를 바라니, 그렇게 된다면 바로 고인이 됩니다. 만약 또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제 말이 미친 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저 구양수와 소식 또한 고인이니, 우선 동방의 글을 취하여, 이곡, 이색, 장유, 이식의 문집을 읽는 것이 가까운 게 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또 이보다는 오늘날 당대의 문장을 배우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sup>41)</sup>

김상정은 문장에 있어서 ‘고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인 ‘고문’을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용문의 논의는 당송고문론에 대한 일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가까운 당송고문을 배우자는 논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고금의 문체가 정말 다르다면, 왜 조선의 지금 문체를 배우지 않고, 당송의 문체를 배우느냐고 논박하며 당송 고문의 허점을 공격하였다. 당송마저도 지금 시점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금문이 아니라 고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지역과 시대의 편벽됨에 구애받지 말라는 구호(“不沮乎其地之偏, 不拘乎其世之下”)로 귀결된다. 이는 “뜻이 큰 자는 학업이 광대하고 눈이 낮은 자는 처지가 비루해진다며” 목표를 높게 잡을 것을 천명한 홍낙순의 논리와 겹쳐진다.<sup>42)</sup>

답고 있는 글이 확인된다. 김수진, 「18세기 老論系 知識人の 友情論」, 『韓國漢文學研究』 52, 한국한문학회, 2013 참조

41) 金相定, 『石堂遺稿』 권1, 「答有道書」 “僕願賢本六經參諸子, 源秦漢流唐宋, 毅然以古人自期則斯古人矣, 若又必已見而狂吾言也, 彼歐蕪者亦古人也, 不如且就東方, 讀稼牧谿澤之集爲近也, 猶不如就今日法當世治文者之爲尤切也.”

42) 자세한 분석은 하지영, 「石堂 金相定 문학론과 산문 일고」,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홍낙순과 김상정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문학론을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한구정맥론에 대한 반성, 고기(古氣)의 회복 논의는 노론 청류계 인물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홍낙순이 서신을 보내 자신의 문학론에 대한 공감을 요청하였던 이양천 역시 당대 문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홍낙순의 서신은 그와의 문학적 공감대를 전제로 작성되었을 것이다.

공보는 문장에 있어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근세 여러 공들의 문장을 보고는 모두 만족하지 않았는데, 비록 농암 김창협이라 할지라도 그가 너무 수식하고 꾸미며, 고기(古氣)가 부족한 것을 싫어하였다. 내가 글을 쓸 때마다 공보에게 보였는데, 그가 허여하면 만족하였다. 이보 이보행과 후재 김이곤은 비록 문장에 능했지만, 평론이 공보만큼 정밀하고 깊지 않다. 지금 그가 죽었으니, 세상에 다시 이러한 자가 있겠는가. 애통하다.<sup>43)</sup>

홍낙순은 이양천의 문장과 안목에 큰 신뢰를 보였다. 인용문에 따르면 이양천은 노론계 문단의 종장이었던 김창협의 글에 대해서조차 만족하지 못할 만큼 당대 문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홍낙순과 마찬가지로 그는 문장에서 고기(古氣)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단편적인 언급이지만 김상숙은 구양수와 소식은 고문이 아니라고 단언하였으며,<sup>44)</sup> 이인상은 그러한 김상숙에게 보내는 시에 당송팔가문만 읽고 있는 당대의 문풍을 비판하면서 진한고문에 대한 독서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sup>45)</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김창협, 이의현 등이 제시한 한구정

43) 洪樂純, 위의 책, 권8『雜錄』“功甫於文章有高眼, 見近世諸公文字 皆不滿, 雖金農巖, 猶嫌其過用粉澤少古氣, 余作文輒示功甫, 得其可許, 則意頗得也, 李易甫金厚哉 雖能文而其評論之精深不如功甫也, 今死矣, 世復有斯人歟, 可哀也.”

44) 洪樂純, 위의 책, 권8『雜錄』“季潤於書無不讀, 尤嬉道德經多悟解, 頗涉三教爲文, 簡潔雅健, 不用作家套語, 常言歐蘇非古文, 其高論如此.”

맥론은 적어도 홍낙순을 포함한 청류계 그룹에서 이탈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청류계 문인들의 상고적 문학론은 문장이 바른 “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도문일치론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다. 김창협(金昌協)의 도문일치론을 계승하며 “문을 통해 도를 깨칠 것을(因文悟道)”을 주장한 이운영(李運榮)의 발언은<sup>46)</sup> “바른 데서 깨닫는 자는 그 문장이 진실되다.(悟於正者其文眞)”고 한 홍낙순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이인상(李仁相)도 도문일치론의 관점에서, 진한고문을 성인의 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이 표방하는 문장은 성인의 도를 갖추어야 하고, 고도와 의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경계하는 역할을 여전히 담당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들이 고풍을 전범으로 내세운 것은 맞지만 이를 그대로 학습하거나 재현할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홍낙순은 사마천(司馬遷)의 문장을 지극한 문장으로 꼽으면서도 그의 글이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sup>47)</sup> 김상정(金相鼎)은 당률초서(唐律鈔序)에서 “배우지 않는 연후에 당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는데 표절과 모방에 치중하는 학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논리하에 김상정은 당시를 직접 재현하려 했던 전후철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다른 사람의 서첩을 모방하지 않고 고인의 필의(筆意)를 상상하여 붓끝에 옮겨 내었던 김상숙(金相肅)의 서법도 유사한 논리를 지니고 있다.<sup>48)</sup> 기본적인 전범을 옛 문예에 두고 그 기(氣)와 의(意)를 획득하되,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라는 것이 이들의 기본 논지였음을 알 수 있다.

45) 李麟祥, 『凌壺集』 권2, 「和金子季潤相肅」, “道載文成元一轍, 聖賢千語復其初. 先秦兩漢猶無取, 世人傳誦八家書.”

46)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4쪽.

47) 각주 26 참조.

48) 최경춘, 「배와 김상숙(金相肅)의 직하체(稷下體)와 서예론(書藝論)의 특징(特徵)」, 『한자한문교육』 1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이처럼 홍낙순을 비롯한 노론 청류계의 상고적 문학론은 의리와 이해, 사(邪)와 정(正)을 구분하며 고도(古道)를 회복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현실관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면서 문예에 전념하는 그들 자신의 삶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들의 선배 세대인 이천보, 남유용, 황경원이 소식 취향에 자기 검열적 태도를 보이며 한구정맥론을 다시 공고히 세우려고 했다면,<sup>49)</sup> 홍낙순, 김상정, 이양천 등 노론 청류계 문인들은 진한고문을 전범으로 내세우면서 고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다. 도문일치론을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학문처럼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의미가 있는 대상으로 문학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이들의 상고적 문학론은 이전 노론계 문단의 지향을 일견 더 보수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예의 독자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길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이들이 내장하고 있는 모순은 유한준, 박지원 등 다음 세대에 심화되어 도와 문 양자간의 분리가 촉진되거나, 전범을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9) 황경원, 남유용, 이천보 간에 이루어졌던 문학논쟁은 백진우의 「英祖朝 執權 老論系 文人의 自己檢閱 樣相에 대하여 -黃景源,南有容,李天輔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참조.

## 참고문헌

- 金相肅, 『坯窩遺稿』,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 金相定, 『石堂遺稿』 한국문집총간 속집 85.
- 金鍾秀, 『夢梧集』, 한국문집총간 245.
- 金鍾厚, 『本庵集』, 한국문집총간 237.
- 俞彦鎬, 『燕石』, 한국문집총간 247.
- 俞漢雋, 『自著』, 한국문집총간 249
- 李奎象 저,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병세재언록』, 창작과비평사, 1997.
- 李胤永, 『丹陵遺稿』, 한국문집총간 속집 82.
- 李麟祥, 『凌壺集』, 한국문집총간 225
- 洪樂純, 『大陵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 김민영, 「능호관 이인상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03쪽.
- 김수진, 「凌壺觀 李麟祥의 文學과 繪畫에 대한 일고찰」,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91~320쪽.
- \_\_\_\_\_, 「18세기 老論系(노론계) 知識人(지식인)의 友情論(우정론)」, 『한국한문학연구』 52, 2013, 165~200쪽.
- \_\_\_\_\_, 「凌壺觀 李麟祥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2, 1~226쪽.
- 김영진, 「배와 김상숙의 생애와 교유, 저작」, 『문헌과 해석』 31, 태학사, 2005, 165~188쪽.
- 김우정, 「沈翼雲의 說文과 산문세계」, 『한문교육연구』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291~322쪽.
-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11쪽.
- \_\_\_\_\_, 「16, 17세기 程朱學的 道文一致論의 균열과 道文分離의 경향」,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385~424쪽.
- 박동욱, 「坯窩 金相肅의 散文 研究」, 『語文研究』 44, 201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5~340쪽.
- 박희병 역, 『능호집』 상, 돌베개, 2016, 1~594쪽.
- \_\_\_\_\_, 『능호집』 하, 돌베개, 2016, 1~548쪽.

- 백승호, 「正祖時代 政治的 글쓰기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3, 1~181쪽.
- \_\_\_\_\_, 「단호(丹壺) 그룹 문인들의 애사(哀辭)에 대한 고찰」, 『한국한문학회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301~328쪽.
- 백진우, 「英祖朝 執權 老論系 文人의 自己檢閱 樣相에 대하여 -黃景源,南有容,李天輔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283~311쪽.
- 유승민, 「凌壺觀 李麟祥(1710~1760) 書藝와 繪畫의 書畫史的 位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1~252쪽.
- \_\_\_\_\_, 「坯窩 金相肅(1717~1792)의 鍾絲體 受容과 그 意義」, 『美術史學研究』 275-276, 한국미술사학회, 2012, 119~148쪽.
- 윤지훈, 「18世紀 農巖季 文人의 文學論과 批評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2008, 1~193쪽.
- 이경규,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敎育 활동」,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231~248쪽.
- 이경순, 「洪樂純 文學研究」,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현일, 「새 자료 배와 『중언』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31, 태학사, 2005, 216~232쪽.
- 최선혜, 「18세기 淸流處士型 文人의 형성과 丹陵 李胤永의 詩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1~117쪽.
- 최경춘, 「배와 김상숙(金相肅)의 직하체(稷下體)와 서예론(書藝論)의 특징(特徵)」, 『한자한문교육』 1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6, 481~508쪽.
- 하지영, 「18세기 진한고문론의 전개와 실현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263쪽.
- \_\_\_\_\_, 「石堂 金相定 문학론과 산문 일고」, 『동양고전연구』 70, 동양고전학회, 2018, 119~156쪽.

## ABSTRACT

##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ory of Hong Naksun

Ha, Ji-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iterary theory of Cheongryu group in the mid 18th century, focusing on the literature theory of Hong Nak-sun. Hong Nak-sun's literary theor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background and unfolding aspect of ancient prose(古文) theory in Joseon. He criticized the literary worlds of those days, which was enthusiastic to study the expressional techniques by applying the writings of Dang-Song as a prime example.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writing, he emphasized the writings of Qin-Han, especially *Shiji*, as a prime example. He has repeatedly read the writings of Qin-Han to acquire Energy(氣) and Thought(意). In addition, he advocated Jaedoron(載道論) and pursued to express universal ethics in concrete facts and plain style. Such literary theory is similar to the art theory of the Noron Cheongryu literary group represented by Lee Yun-young and Lee In-sang. These antiquarianism and moral literary theories reflected the conservative view of the Cheongryu literary group, and at the same time, they were sometimes used as the basis for advocating their lives by being dedicated to literary arts. Cheongryu literary group can be used as a clue to see the detailed composition of Noron literary group and the changing aspect of literary theory and reveal the origin of Yeongam group literature.

**Key Words** Noron, Qin-Han Writings, The mid 18th Century, Hong Naksun, Kim Sangjeong, Cheongryu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